

해남 군곡리 패총 5차 발굴조사

약 보고 서

2018. 02.

목 차

I. 조사개요	03p
II. 조사내용	05p
1. 유적층위	06p
2. Pit별 조사내용	07p
III. 조사단 의견서	11p
출토유물현황	13p

I. 조사개요

1. 조 사 명 : 해남 군곡리 패총 5차 발굴조사(허가 제2017-1695호)
2. 조사지역 :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725-1전, 936-1전 일원
3. 조사면적 : 160m²
4. 조사기간 : 2017년 12월 11일 ~ 2018년 3월 10일(현장조사 08일)
5. 조사기관 : 목포대학교박물관

6. 조사 목적 및 경위

군곡리 패총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유적의 전체 면적(83,557m²) 중 패각층과 구릉 정상부 일부 면적만을 조사하여 유적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또한 오랜기간 동안 경작으로 인하여 구릉 하단부는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조사를 통한 유구와 패각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군곡리 패총의 남동쪽 모서리에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원위치를 벗어나 있어, 상석 주변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하부구조를 파악한 후 복원하고자 한다.

7. 조사단구성

• 조 사 단 장	김건수(목포대학교박물관장)
• 자 문 위 원	이영문(목포대학교 교수) 이정호(동신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박철원(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장)
• 책 임 조 사 원	정영희(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조 사 원	김영훈(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 준 조 사 원	정혜림(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 보 조 원	배형곤 · 송현수(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8. 조사방법

- 1) 구룡의 남동쪽 하단부에 방격법으로 10×10m Pit 9개를 설치하여 유구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지식묘 조사 진행
- 2) Pit별로 지형에 맞게 5×8m, 2×8m, 2×5m, 4×4m로 트렌치 설정하여 발굴 진행하고, 유구 밀집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확장조사 및 유구 내부조사
- 3)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유구와 유물은 분포범위와 출토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디지털카메라와 영상기기 등으로 촬영(항공촬영 포함)
- 4) 유구실측작업(평면, 입면, 단면, 토층은 1/20, 1/40 스케일로 조사원 직접 실측)
- 5) 발굴조사시 출토된 유물은 세척 후 사진촬영과 실측을 하고 종류별로 분류·보관하며, 보존처리를 요하는 유물은 응급보존처리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
- 6) 유적의 절대연대 도출을 위한 자연과학분석
- 7) AMS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고고지자기 분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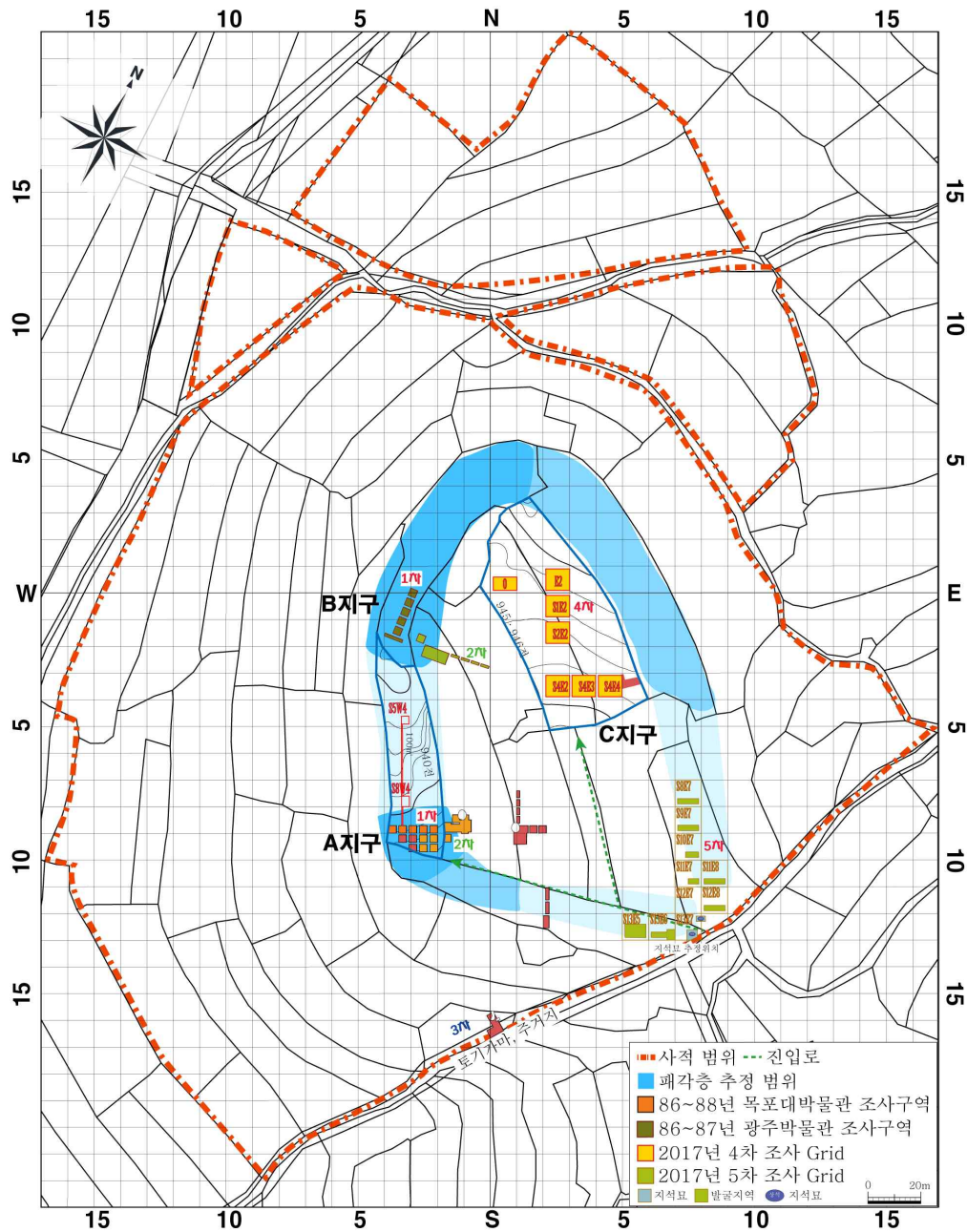
9. 조사지역 전경



<사진 1> 군곡리패총 5차 발굴전경(직상)

II.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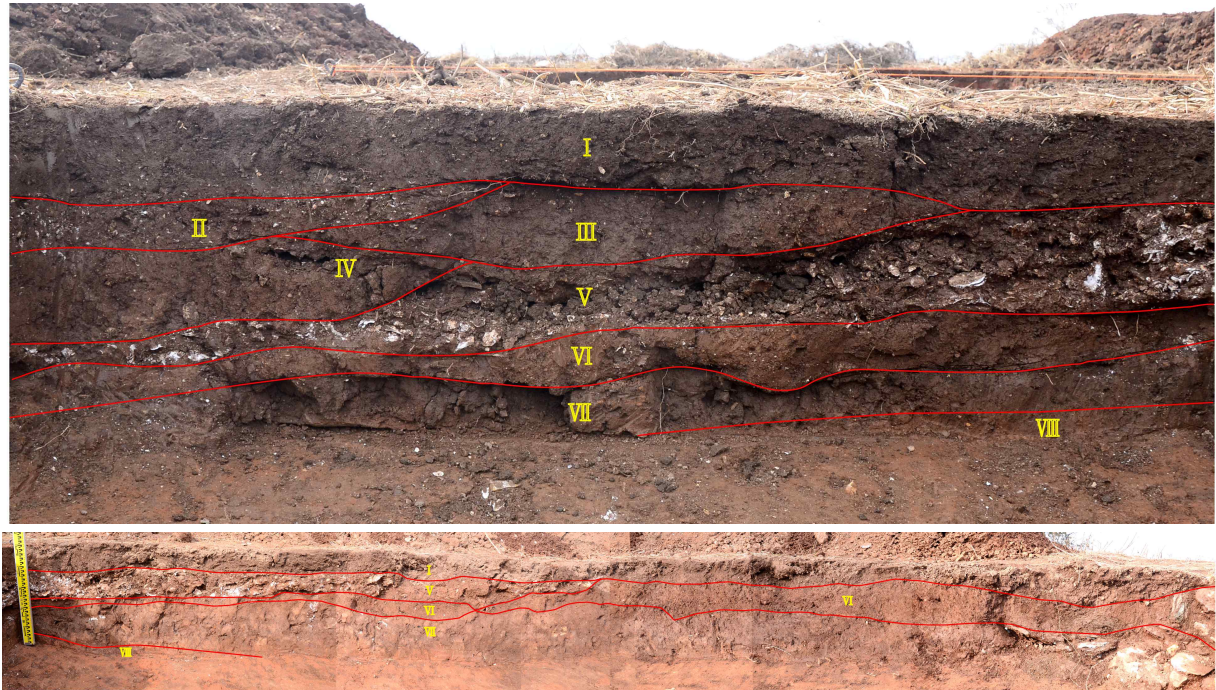
발굴조사는 군곡리패총의 남동쪽 모서리(725-1전, 936-1전)에 10×10m Pit 9개를 설치하여 층위 발굴을 시행한 결과 S13E6·S13E7 Pit에서 지석묘 상석 2기와 하부구조 1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면 1> 연도별 조사 지역

1. 유적 층위

구릉의 남동쪽 모서리(S8E7 · S9E7 · S10E7 · S11E7 · S11E8 · S12E8)는 후대의 경작으로 지형이 훼손되어 있으나, 남쪽 S13E5 · S13E6 · S13E7 Pit는 원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2> S13E6 上(서), 下(북)

I 층(표토층)

표토층은 경작층으로 후대의 교란에 의해 패각이 일부 혼입되었다. 서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패각은 경도가 높은 꼬막이 주를 이루며, 굴 또는 바지락 등은 잘게 파손되어 편으로만 확인된다. 층의 두께는 4~14cm 정도이다.

II 층(흑갈색 혼패토층) : 흑갈색사질점토층+패각파쇄혼입

흑갈색 혼패토층으로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경작으로 굴 등의 경도가 낮은 패각이 파쇄되어 층을 이루고 있다. 층의 두께는 2~6cm 정도로 얇다.

III 층(암갈색사질점토층) : 암갈색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층으로 I 층과 유사하며, 패각편이 미량 포함되어 있다. 층의 두께는 4~12cm 정도이다.

IV층(적갈색사질점토층) : 적갈색사질점토

Ⅲ층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거나 경도가 Ⅲ층보다 점질에 가깝다. 층의 두께는 4~12cm 정도이다.

V층(회갈색패각층): 회갈색사질점토+패각혼입

굴, 꼬막 등의 패각이 주를 이루는 층이다. 층의 두께는 14~18cm 정도이다.

VI층(적갈색점토층): 적갈색점토

다른 층에 비해 점질이 강하며, 패각층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다. 층의 두께는 4~20cm 정도이다.

VII층(흑갈색점토층): 흑갈색점토

단단한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다. 층의 두께는 10~36cm 정도이다.

VIII층(기반층): 적갈색 암반

2. Pit별 조사내용

1) S8E7 · S9E7 · S10E7 · S11E7 · S11E8 · 12E8

조사결과 유구와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3> S8E7 · S9E7 · S10E7 · S11E7 · S11E8 · 12E8 Pit 전경

2) S13E5

조사결과 유구와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4> S13E5 · S13E6 · S13E7 pit 전경

3) S13E6 · S13E7

표토층에서 경질무문토기편과 발형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패각층은 S13E6 북장벽에 15~18cm 두께로 남아 있으나 대부분 경작으로 훼손되었다. 유구는 상석 2기와 하부구조 1기가 조사되었다. 1호와 2호 상석은 모두 하부구조가 확인되지 않았다. 1호 상석은 남쪽방향으로 약간 들려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반면, 2호 상석은 농로에 매몰되어 있었다. 마을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상석은 농로를 만들면서 원위치를 벗어나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구조는 S13E6 Pit 동단 벽 끝자락에서 상석 없이 확인되었다. 후대의 경작과 농로로 인하여 석실 내부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석실의 장·단벽은 할석형 판석으로 축조하고 바닥석은 얇은 할석형 판석을 전면에 깔아 시상대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석실 바닥과 주변부에서 무문토기편, 석도편, 석착편 등이 출토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성석과 하부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석묘 현황

호 수	규모 (cm) 길이×너비×두께	평면	단면	하부구조						
				적석	규모 (cm)	벽석	바닥	형식	석실 방향	출토 유물
1호	200×130×70	장방형	장방형	×	×	×	×	×	×	×
2호	240×85×60	타원형	장방형	×	×	×	×	×	×	×
3호	×	×	×	벽석 밖 보강	150?×53×2?	할석형 판석	할석형 판석	석곽형	N2° E	무문토기편 석기편 등



<사진 5> S13E6 · S13E7 Pit 조사전경(상)1 · 2호 상석, (하)3호 하부구조

3) 지석묘 상석 이전

상석 2기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우려가 있어, 군곡리 패총 내에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여 안착하였다.



<사진 6> 1·2호 상석 S13E6 Pit 상단내 이동완료 전경

Ⅲ. 조사단 의견서

□ 조사개요

1. 유적명 : 해남 군곡리 패총
2. 허가번호 : 제2017-1695호
3. 대상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725-1전, 936-1전 일대
4. 발굴대상면적 : 160m²

□ 조사결과

발굴결과, 지석묘 상석과 하부구조를 제외한 유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S8E7 · S9E7 · S10E7 · S11E7 · S11E8 · 12E8 · S13E6 Pit 하단부 끝자락에서 흑갈색의 혼패토층이 일부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패각층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후대의 경작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1. 지석묘는 상석 2기와 하부구조 1기가 조사되었다. 상석은 농로를 만들면서 원위치를 벗어나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구조는 후대의 경작으로 석실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석실주변에서 무문토기편, 석기편, 경질 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이 다수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제의와 관련된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패각층의 분포범위는 1차부터 5차까지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파악해 보면 구릉의 중앙을 중심으로 평탄부는 패각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구릉의 사면부는 전체적으로 패각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패각층의 중심부는 서쪽 사면으로 현재까지도 잘 남아 있다.

□ 조사단 의견

유적의 전체범위 중 일부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유적에 전체적인 분포범위, 규모,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해남 군곡리 패총의 종합 정비·복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5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상석 2기는 유적내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종합 정비·복원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2018. 02.

목포대학교박물관장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 량	비 고
1. 금속		.	
2. 옥석유리		2점	
3. 토도		4점	
4. 골각		.	
5. 목죽초칠		.	
6. 기타		4박스	
계		6점/4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 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	석도편	1점	옥석	청동기	(5.6)	(3.4)	0.7	18HG-약 01	
2	석착편	"	옥석	청동기	(5.6)	4.1	1.5	18HG-약 02	
3	삼각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	"	토도	철기	9.2	8.9	1.2	18HG-약 03	
4	삼각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	"	"	철기	8.8	5.6	0.8	18HG-약 04	
5	저부편	"	"	철기	(9.4)	(14.3)	8.3	18HG-약 05	
6	저부편	"	"	철기	(6.6)	(11.9)	6.6	18HG-약 06	
7	기타	1박스	토도	청동기	·	·	·	18HG-약 07	
8	"	"	"	청동기	·	·	·	18HG-약 08	
9	"	"	"	삼국	·	·	·	18HG-약 09	
10	"	"	"	삼국	·	·	·	18HG-약 10	

2. 출토유물 사진



17HG-약01



17HG-약02



17HG-약03



17HG-약04



17HG-약05



17HG-약06



17HG-약07



17HG-약08



17HG-약09



17HG-약10